

2024년 2월 이병호/최형진 선교사 선교소식지



2024. 2. 14. 13:41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가 끝났으니 이제 2024 년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향해 본격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연 초에 주님은 저에게 이 한해에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 라고 외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갈렙처럼 약속을 믿고 축복의 산지를 향해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한해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축복의 산지를 차지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 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위에 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땅의 소식을 전합니다. ♥

☞ 현지교회 자립 프로젝트

19세기 말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위해 제시되었던 선교 방법론은 유명한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론이었습니다.

토착교회를 성장시키되 토착교회가 스스로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교 방법론입니다. 소위 “자전, 자립, 자치”는 지금도 모든 선교의 기본이자, 모든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목표를 따라 현지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선교사역을 시작하자는 의견들이 이곳 한인교회에서 모아졌고, 여러 곳을 함께 탐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상황이 가장 열악한 파시피코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파시피코 교회는 십 수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성도가 50 여명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떠나고 단지 6 명의 성도만 출석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새로운 목회자를 이곳으로 보냈고, 새로운 목회자가 온지 10 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노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생활도 어려운 형편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시피코교회 방과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Abres camino mi Dios asi eres tú (길을 만드시는 분 그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2024 년 이 산지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교회를 다시 자립하도록, 자전하고 자치하도록 마중물이 되어 보자고 하나의 마음이 모아졌고 드디어 이 사역을 위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몇몇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선교자원을 마련하고 우선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 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가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 전도를 하고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사단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호세 크루즈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난민센터 빵과 컵라면을 먹는 아이들

☑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곳 한인교회분들과 함께 난민센터 답사 이후 컵라면과 빵을 들고서 난민센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는 약 120 명의 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들에게 빵과 컵라면을 나눠 주었습니다. 먼 남미에서부터 살기 위해 몰려드는 많은 난민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 준 빵과 컵라면을 정말 맛있게들 먹었고 더 달라고 하는데 준비한 것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나눠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와 함께 전달된 현지 목사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새겨지고 생명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주간 진행된 한글학교도 지난 주에 잘 마쳤습니다. 10 명의 현지 학생들이 모두 각각 한 단계씩 마쳤습니다. 현지인들을 만나고 한글을 가르치지만 저와 아내는 그들을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쌓아가며 한마디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자가 생겨나리라 믿으며 씨를 뿌립니다.



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

☞ 마약센터 사역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로사리또에 있는 마약센터에 찾아갑니다. 이 사역을 진행하는 동료 선교사님을 도와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선교부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약 70여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월 퇴소하기도 하고, 입소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중독된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거듭나는 영혼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소자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중

☞ 검정고시 보러 갑니다.

아내와 하은, 하민이는 오는 3월 중순경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면 좋았을텐데 하은이의 나이가 현지 고등 학교를 다니기에는 많아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하은이와 하민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검정고시 이후에 하은이는 대학진학을 해야 하는데 좋은 길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큰 아이 하연이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거처가 없어서 지금도 선교관에 있습니다. 좋은 거처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진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교회에서도 순장을 하며 제자반에 들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업과 일을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학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차량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언어습득의 지혜를 주소서.
- 파시피코교회 자립, 마약센터와 한글 학교를 통한 복음 전도를 위해
- 한인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하연이의 거처를 주시고, 하진이에게 차량을 주세요.
- 하은, 하민이의 진로를 위해서.

선교사역에 함께 하기

월1만원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선교사역은 누군가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든든한 빌립보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후원계좌 한국 : 990-090819-582 하나은행

미주: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

Global Partners USA T: 714-774-9191

(GP) 이병호 / 최형진



[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 & 최형진 사역 소식](#)

안녕하세요. 이병호, 최형진 선교사입니다. 2010년부터 필리핀에서 대학생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하던 중, 막내 자녀의 건강 문제로 2017년부터 본부 사역을 섬겨 왔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고, 코로나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든 사역은 현지 목사님들께 이양하였습니다. 2022년 자녀의 완치 판정과 함께 멕시코

로 길을 인도해주셔서 선교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지만, 선교사가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과 긍휼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

go.missionfund.org